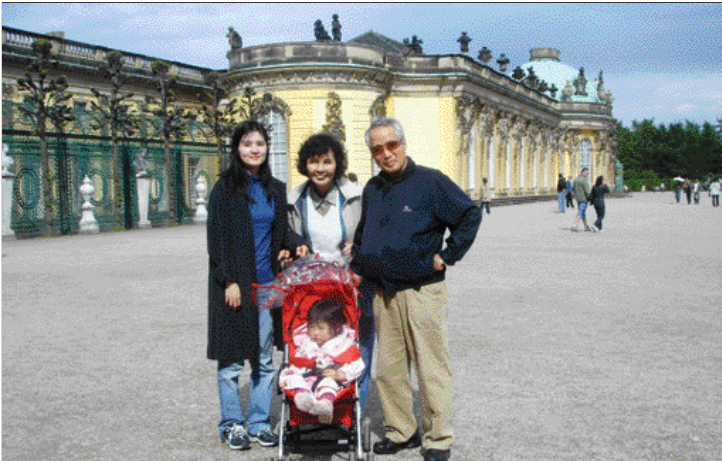


외손녀 따라간 독일여행 [2]

權 五 庠

편집고문



▲ 포츠담 상수시궁 회담장 앞마당에서 유모차를 타고 있는 연수 뒤에 선 연수의 어머니와 외할머니·필자



▲ 루터하우스 앞 거리에서 유모차를 탄 연수 뒤에 선 필자 내외와 연수 어머니

저녁에는 혼자 나와 그 공원으로 가 걷기운동을 했다. 돌아오면서 길가에 줄지어 세워 둔 많은 자동차의 생산국을 확인해 보기도 했다. 그 가운데는 기아차와 현대차도 섞여 있었다. 독일 같은 자동차의 나라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가 끼어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포니차가 베를린 거리를 달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독일 사람들의 검소한 생활 자세의 징표인 것 같기도 했다. 독일의 수입차 가운데는 미국의 포드가 가장 많은 것 같고 다음이 일본 차, 그 다음이 한국 차인 듯했다.

4일은 일요일이라 한국 감리교 이병희 목사가 이끌고 있는 백림교회로 갔다. 집사람은 피로를 느껴 집에 머물기로 했다. 교회는 앞마당도 제법 넓고 건물도 크고 좋았다. 정성껏 헌금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의 설교 차례가 되었다. 설교 첫 머리에 의외의 말씀을 했다. 연수 외할아버지가 왔다면서 먼저 소개를 했다. 일어서 인사를 하고 나니, 바로

한식은 맛이 좋았다. 그 교회는 30년 할부로 구매하는 교회 재산이란다. 그리 많지 않은 신도임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신도는 대부분이 유학생이고 젊은 사람들이다. 이 교회가 유학생을 비롯하여 이곳으로 오는 많은 한국사람에게 상당한 편의와 도움을 주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존재가치를 또 달리 느낄 수 있었다.

교회를 나와 집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갔다. 과거 동베를린 지역의 낙후된 곳을 찾아보려고 다시 동베를린 지역으로 갔다. 아직도 낡은 집이 여기저기 있을 뿐 뚜렷한 차이 같은 것은 발견할 수 없다. 돌아오는 길에 부서진 교회를 다시 한번 더 보고 집 근처의 백화점에 들러 이것저것 구경을 했다. 연수가 모래놀이(아이는 2발음이 잘 안되어 ‘모에노이’라 한다)를 가잔다. 근처의 놀이터로 가 모래놀이를 했다. 놀이에 열중하던 연수가 어린이 놀이방으로 가잔다. 집 근처 쇼핑센터 놀이방으로 갔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에 태우니 기분이 좋아 웃는 얼굴

로 잘도 돈다. 옆에 독일 어린이가 다가오니 얼굴을 만지며 가까이하려 했다. 말이 안 통하니 여의치 않았다. 연수는 심히 아쉬운 표정으로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았다. 연수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내일은 독일 남쪽의 라인 강변으로 가 일박하고 파리를 거쳐 벨기에를 지나오는 3박4일의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일찍 들어가 쉬기로 했다.

5일 아침에도 날씨가 화창하고 좋았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서울에 있는 손자 세준(世峻)이 생각한다. 어린이날에도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출발 전날 어린이날 선물삼아 달리는 기차를 사주고 와 마음은 좀 가볍다. 몇 만리 지역에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이 저희 식구들만으로 외롭게 보낼 연수가 마음에 걸려 만사 제쳐두고 달려왔으나 막상 독일에는 어린이날이 없다. 연중 내내 어린이날이란다.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모두가 여행준비를 끝내고 자동차에 오르니, 아침 아홉 시경이었다. 약 두 시간 정도 달려 엘베강에 이르렀다. 그리 큰 강은 아니나 2차 세계대전 때 미군과 소비에트 군이 이 강을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었다는 일화가 생각나기도 했다. 중간 휴게소에서 몇 차례 쉬었다. 휴게소라 해봐야 유료화장실이 있고 잠시 앉아있을 벤치 몇 개 정도였다. 가끔 간단한 매점이 있는 곳도 있었다. 설 때마다 화장실에 내어야 할 잔돈 찾느라 부산을 떠는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나는 오후에는 화장실에 잘 가지 않아 편했다. 연수는 자다가 놀다가 하면서 가끔 창밖의 경치도 즐기는 듯했다. 소위 아우토반이라는 유럽 고속도로에서는 때에 따라 200km를 넘게 달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빠른 속도에 신경 쓰느라 뒤돌아보며 연수 재물을 즐길 여유가 없다. 계속 앞만 보며 속도계만 주시한다. 간간이 옆으로 보이는 고속도로 주변 들판의 풍경도 일품이다. 양옆으로 연속해 뻗어 있는 소나무 숲은 장관을 이룬다. 산 하나 없는 들판에는 목초가 무성하고 유채꽃이 만발해 황금 밭을 이룬다. 독일 고속도로변의 풍경은 이렇게 우리와 판이하다.

거의 700km 가까이를 달려 마침내 목적지 라인강변에 도착했다. 그 지역은 독일 행정구역상으로 코블렌츠(Koblenz)라는 곳이다. 바로 숙소로 정한 독일의 천년 묵은 고성(古城) 에렌부라이트스타인(Ehrenbreitstein) 요

새要塞로 찾아가기로 했다. 몇 차례 돌았으나 입구를 찾을 수가 없다. 가까우니 걸어가서 입구를 확인하게 했다. 목적지 근처의 거리에서 도로사정이 복잡할 때는 지피에스로도 찾기가 어려움을 느낀다. 자꾸 가버리는 시간이 아까워 바퀴 닿는 대로 가다보니 로렐라이언덕 쪽으로 가고 있었다.

가는 도중 강변에 풀밭이 있어 그곳에 잠시 머물기로 했다. 연수를 유모차에 태우고 풀밭을 건너 강변으로 갔다. 크고 작은 배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우리 한강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선평되어 운하문제가 나왔으리라 짐작해 본다. 지나온 풀밭에 클로바가 있어 나 홀로 그 풀밭으로 다시 갔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동심으로 돌아가 네 잎 클로바를 찾기 시작했다. 네 잎 클로바 몇 개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다섯 잎 클로바까지 하나 땀다. 사위가 네 잎 클로바 하나를 달라기에 얼른 줬다. 집사람이 다섯 잎 클로바는 그리 좋은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무엇이랄도 희귀한 것은 좋은 것이다. 그동안 여러 번 네 잎 클로바를 찾아 본 적은 있었으나 아직 단 한 번도 다섯 잎 클로바는 본 적이 없다. 특히 다섯은 내가 좋아하는 숫자이기에 더 기분이 좋다. 무엇이냐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이리라. 돌아 나오면서 클로바 잎을 들고 좋아하는 나를 본 연수는 고사리 손으로 세 잎 클로바 잎을 여러 개 따다가 이 어린 할아버지에게 건넨다. 그 모습이 하도 귀여워 안 아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수가 요구르트와 아이스크림을 사 달란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다. 벌써 저녁녘이라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었다. 강변에는 기념품 가게만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가게를 찾으며 가다보니 어느새 로렐라이언덕 바로 아래에 이르렀다. 옛날 이곳에 왔을 때는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이번에는 아래에서 쳐다보게 된다. 그때는 언덕 아래에는 푸른 물이 감돌아 나가는 것을 분명히 내려다 봤다. 지금은 그곳이 매워져 길이 되었다. 로렐라이언덕의 유래와 명성을 생각하면 오래오래 보존할만도 한데 매워버린 걸 보면, 독일인은 누구보다 실용성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되돌아 나오다가 작은 햄버거 집을 발견하고 햄버거를 사다가 맛있게 먹었다. 그곳에서 연수가 필요로 하는 것도 다 충족시킬 수 있었다. 좀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고 있었던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로 들어가야 겠기에 재촉하여 일어선다. 도

중에 라인(Rhein)강과 모젤(Mosel)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바라보며,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말로 한 차례 했고 내가 독일제 모젤 권총이 유명했다는 말을 하면서 숙소로 향했다. 미리 길을 봐두었기에 이번에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유스텔 바로 앞에다 차를 세울 수 있었다.

체크인을 하고 방을 찾아 들었다. 2층 침대 세 개에다, 좀 비좁긴 하나 깨끗하여 하룻밤 묵어가는 데는 아무런 손색이 없다.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자 화장실을 찾으니 지하에 있었다. 깜깜한 지하실로 내려가 불을 켜고 화장실을 확인했다.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밤에 누구라도 화장실을 쓰려면 내가 같이 따라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위층으로 올라와 샤워장을 확인했다. 샤워장도 깨끗하고 더운 물이 잘 나왔다. 샤워장 안에도 화장실이 여럿 있었다. 굳이 지하실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옆방에는 독일 사람들 몇이 묵는 것 같았다. 또 안쪽 방들에는 독일 중학생인 듯한 남녀 학생 수십 명이 묵고 있었다. 몇 사람 남녀 학생과 내가 껌껌한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 가운데서 반장인 듯한 남학생이 눈이 뚱그려져 나에게 무엇인가를 묻는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아마 어두운 복도에서 갑자기 이방인을 만난 데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라 생각되었다. 아마도 ‘보wo’라는 말이 들려 온 것으로 봐서 ‘누구나? 또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물음인 것 같았다. 나는 독일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터라, 영어로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하룻밤을 묵는 손님 이라 했다. 그들은 잘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았다. 궁여지책으로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내가 묵는 방 앞으로 데려와 문을 열었다. 안에 일행이 있음을 보고는 모두 웃으며 돌아갔다. 고등학교 3학년 때와 대학 1학년 때까지는 독일어 소설도 읽었다. 지금은 이렇게 독일어 까막눈이 된 것은 다 게으름 때문이라 생각한다.

누가 어느 침대에서 잘 것이냐는 문제로 잠시 의논이 있었다. 연수 모녀를 제일 안쪽 아래침대에 자게 하고 그 위에 할머니, 가운데 아래침대에 사위가 자게 했다. 나는 맨 바깥, 문앞 아래 침대에 자리를 잡는다.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녀는 안쪽 침대로 옮기라고 성화다. 웃으며 말없이 잘 준비를 끝내고 나와 샤워는 밖으로 나왔다. 목적은 각기 다르며 라인강의 야경을 구경하려 했을 테고 나는 내일 새벽운동을 할 장소를 더 알아두려는 속셈이다. 그 옛날은 연병장이었을 운동장 가장자리에 선다. 발아래 펼쳐지는 라인강의 야